

보도 시점 2025.12.1.(월) 11:30
(2025.12.1.(월) 석간)

배포 2025.11.30.(일) 16:00

‘세계적 인공지능(AI) 강국, 탄탄한 사이버보안으로 뒷받침’ 제1회 인공지능 해킹 방어대회(ACDC) 개최

- AI for All, Security for AI”를 주제로, 기관·기업 모의공격 팀(레드팀), 세계 해킹대회 수상팀 및 정보 보호 유관 대학 착한 해커(화이트해커) 등 총 187개 팀 참여
- 오픈AI, CISCO, 구글 클라우드 및 국내 보안기업 등 특별 연설·강연
- 인공지능 해킹 대국민 체험 구역 및 인공지능 보안 위협 동향 공유 등 다양한 부대 행사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조영철, 이하 ‘KISIA’)와 함께 ‘2025 인공지능(AI) 해킹 방어대회(ACDC, AI Cyber Defense Contest)’를 12월 1일(월)과 2일(화)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모두를 위한 보안(AI for All, Security for All)’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5 인공지능 해킹 방어대회(ACDC)는 인공지능 보안과 관련된 3대 핵심 영역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AI for Security),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Security for AI), 인공지능 이음터(플랫폼) 보안(AI Platform Security)’ 등을 포괄하는 세계 최초 방식의 해킹대회이다.

대회 진행 방식은 참가자별 격리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환경에서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숨겨진 ‘특정 문자열(Flag)’을 획득해 총점을 산정하는 ‘CTF(Capture the Flag)*’ 형태로, 지난 10월 31일(금)과 11월 1일(토) 양일간 온라인으로 예선전을 진행했다.

* CTF(Capture the Flag): 대회 참가자가 주어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숨겨진 ‘깃발(Flag)’이라고 불리는 특정 문자열이나 정보를 찾아내서 점수를 획득하는 경쟁/학습형 해킹대회

예선에는 총 주요 공공기관과 대기업 모의 공격팀(레드팀), 세계 해킹대회 수상 보안기업, 국내 정보보호학과 보유대학 등 총 187개 팀 748명이 참가하여 높은 관심을 모았으며,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일반 부문 ‘The Bald Duck’ 팀(티오리 단일), 대학생 부문 ‘벌집으로 만들어 주지’ 팀(한국과학기술원·서울대·건국대·단국대 연합팀) 등 상위 20개 팀이 본선 진출을 결정지었다.

1일 오전 개회식에서는 심대열 OpenAI 솔루션 아키텍트, 이안림(Ian Lim) CISCO 아태지역 고객 총괄, 권태경 연세대학교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새로운 보안 환경을 제시하는 한편, 본선 진출 20팀이 직접 참여하는 의례(세리머니)를 통해 참가자들의 출전 의지를 다지고 대회 취지를 재조명하였다.

이어서 1일 오후에는 라오 수라파네니(Rao Surapaneni) 구글클라우드 부사장 및 국내 저명 착한 해커(화이트해커)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보안 통찰력 발표회(AI 보안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참여자 간 실시간 대담과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보안에 대한 각자의 통찰을 제시한다. 이와 동시에 장장 8시간의 해킹 방어대회 본선이 개최되며 현장에서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 보안 역량을 보여주는 6개 팀을 입상자로 최종 선발하게 된다.

시상식은 본선 이튿날인 12월 2일(화) 오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며 수상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1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1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상(1점), LG유플러스 대표이사상(2점) 등 상장과 총 6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2025 인공지능 해킹 방어대회(ACDC)는 인공지능 보안에 관심을 가진 국민 누구나 사전 등록* 또는 현장 등록을 통해 참관할 수 있는 무료 행사이며, 행사 개회식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유튜브 채널(@kisa118)을 통해 생중계된다.

* 사전 등록처(온라인): 2025 ACDC 공식 홈페이지(acdc.ai.kr)

배경훈 부총리는 “인공지능은 보안을 위협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나, 동시에 우리의 디지털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본 대회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우리 AI 보안 인재들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장이 되길 바라며 정부는 세계적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 탄탄한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산업과	책임자	과장	최영선 (044-202-6450)
		담당자	사무관	박세진 (044-202-6455)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